

쇼핑몰 10곳 중 4곳 ‘안전법 위반’… 화재 등 위험에 노출

고용부, 대형유통업체 207곳 조사 시정명령 170건, 5건에 ‘과태료’ 흠플러스, 법 위반 27곳 ‘최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소방청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안전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9월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화재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형 유통업체 대상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내 하역장과 주차장 집중 점검했다.

등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그 결과, 170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

은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보면 흠플러스의 법 위반 사업장 수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조치도 53건으로 최다였다.

롯데는 21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고, 47건이 시정조치됐다. 이마트는 법 위반 17곳, 32건 시정조치가 각각 확인됐다. 코스트코도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이 시정됐다.

특히, 대전 아웃렛 사고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 3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해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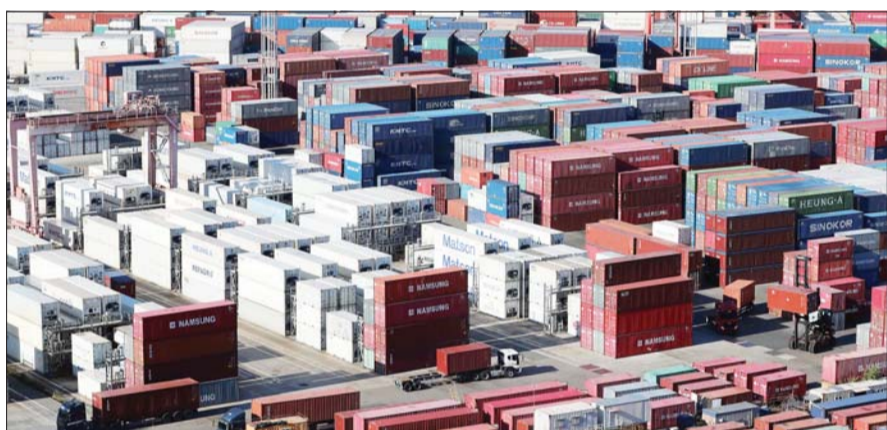
앞서 지난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고용부는 업체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ICT 수출 10.3% ↓… 180억 달러 아래로

산업부, 10월 수출액 178.7억 달러 수입 137.6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부산 남구 신산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월별 ICT 수출은 하락세로 돌아서 처음 180억달러 아래로 감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17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수입은 137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41억1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산업 수출 가운데 ICT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8억3000만달러(21.5일)로 전년 동월 9억5000만달러(21일) 대비 12.4% 줄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IT기기 수요 둔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으나, 휴대폰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위주로 증가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은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나, 메모리의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반도체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한 9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 감소

로 인한 재고누적, 고정 거래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올해 6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디지털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5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는 감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한 2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지속으로 증가했고 완제품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세 지속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 IT기기 생산 축소 등으로 주요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을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으로 인한 공장 중단 영향·내수 정체 등이 지속되며 전년 동월대비 16.0% 감소했고, 베트남은 모바일용 AP 등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1.3% 소폭 줄었다.

미국은 이차전지 호조 속에도 반도체 감소폭이 커지며 13.9% 감소했고, 유럽연합은 4.6%, 일본은 5.3%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수입의 경우 디스플레이(-16.3%)를 제외하고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모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6.8억불), 일본(13억불), 미국(6.8억불)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55억불), 베트남(8.7억불)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9세 이하, 소득 제자리… 배당소득만 ‘급증’

진선미 의원 ‘연령별 소득 현황’ 2020년 전체 근로소득 4% 증가 청년층 1.3%… 배당소득 137% ↑

29세 이하 청년층의 소득이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만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

이 2020년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137.1% 증가한 2조9742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소득의 가파른 증가율에 비해 다른 소득은 비교적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은 2020년 91조8927억 원으로 전년(88조6635조 원) 대비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8조3888억 원으로 전년(82조3463억 원) 대비 1.3%만

올랐으며, 이자소득은 7836억 원에서 8022억 원으로 2.4% 늘었다.

통합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다.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통합소득은 873조4329억 원에서 908조8688억 원으로 4.1% 늘었지만, 청년층은 3.6%(88조6635억 원→91조892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만 따지면 그 차이는 더 커졌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올 좋은일터 기업 ‘세아제강·대유에이피’

고용부, 2곳에 대통령상 수여 원익큐엔씨 등 2곳 국무총리상

올해 노사가 꼽은 좋은 일터 기업 10곳 중 철강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자동차 스티어링휠 제조업체 ‘대유에이피’ 두 곳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 문화대상에는 노사 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01개 기업 중 24곳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2곳, 고용부장관상 6곳 등 총 10곳이 최종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는 정

부 포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세아제강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예상치 못한 노사 분규로 갈등을 겪었지만, 노사 파트너십 재정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고용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시 100% 임금 보전을 실시해 왔다는 평가다.

이어 국무총리상은 원익큐엔씨와 서울 시농수산식품공사 2곳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상은 넥센, 케이티셋, 유한킴벌리, 팰리에프에스, 신승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곳이 받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서부발전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관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서부발전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이전 개소

4개 발전소 사이버공격 24시간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 사이버안전센터의 확대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태안·평택·인천·군산 등 서부발전의 4개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24시간 탐지·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서부발전은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이전으로 통합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전원 및 장비실을 구축해 유사시에도 중단 없는 보안관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9면이던 통합보안관제 화면을 16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위기 대응 종합상황실, 침해사고분석실을 신설해 사이버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키웠다. 특히 종합상황실의 경우 주부처인 산업부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화상회의시스템이 구축돼 각종 해킹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김성균 서부발전 부사장은 “국가기관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도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경원,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